

4면



컨터(Cần Thơ) 메가허브 메콩 델타의 새 수도, 세 개 성이 하나로 합쳐졌다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병원을 고르나

베트남 사람들이 병원을 고르는 방식은 한국과 다르다. 동네 의원에서 시작해 큰 병원으로 올라가는 한국식 단계적 진료와 달리, 베트남 환자들은 처음부터 대형 국립병원을 찾는다. 새벽 4시에 번호표를 뽑으러 가고, 복도 바닥에서 대기하고, 교수급 명의를 만나기 위해 며칠을 기다린다. ...

6면



킨도(Kinh Do)와 키도(KIDO)

1993년, 호찌민시의 작은 과자 가게에서 시작했다. 창업 자본은 금 0.3돈(약 1달러)이었다. 그 가게가 베트남 최대 제과·식품 기업으로 성장했다가, 미국 식품 공룡에게 브랜드를 팔았다가, 다시 베이커리로 돌아오는 굴곡진 30년을 걸어왔다. 킨도(Kinh Do)와 키도(KIDO)...

12면



컨터(Cần Thơ) 수상시장 물 위에서 시작되는 하루 메콩 델타의 심장

새벽 다섯 시, 안개가 낮게 깔린 강 위에 수백 척의 배가 모여든다. 대나무 장대 끝에 수박이 매달려 있으면 그 배는 수박 장수다. 파인애플이면 파인애플, 바나나면 바나나. ...

15면



사장님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금융은 신한이
책임
지겠습니다



실시간 입금안내

계좌 입금 즉시
스피커로 입금 내용 안내



사업용 계좌

사업용 일출금 계좌에
최대 연 4.5% 이자 제공



스마트 결제 POS

한국어 지원 POS 제공
및 최저 카드 수수료 혜택



매장관리 서비스

여러 매장을 SOL App에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



SOL 앱 다운로드
QR 스캔



신한금융그룹 in Vietnam

Shinhan Bank Shinhan Finance Shinhan Securities Shinhan Life Shinhan DS

18년 만의 FDI 최고치, 한국 2위, 에너지·AI 투자 패러다임 전환 2026년 상반기 베트남 FDI 지형 변화와 한국 기업 투자 기회 평가

총 등록 FDI (H1 2026)	Viet Wagyu 현지 생산가	달랏·다락 고원 기후
\$346.5억(51.6조 원) 전년 동기 대비 +61%	\$130.3억(19.4조 원) 18년 만에 최 고치 +11.2%	\$54.5억(8.1조원) 2위 싱가포르에 이 어 31.4% 점유

▶ 국가별 신규 등록 FDI 현황 및 평가 (H1 2026)

국가	신규등록	비중	특징	대표 기업	전망
싱가포르	\$73.1억 (1위)	42.1%	SPC· 금융 부동산	캡셀·SeaGroup CapitaLand	VIFC 연계 금융 투자 확대
한국	\$54.5억 (2위)	31.4%	에너지·전자 LNG·반도체	SK이노베이션 LG이노텍·롯데	Res.10 기회 기 술이전형 전환
일본	\$12.0억 (3위)	6.9%	정밀기계·식품 고부가가치	아지노모토 덴 소·미쓰비시	소규모·고품질 장기 파트너십
중국	\$9.8억 (4위)	5.6%	경공업·태양광 지방 확산	비나텍스·술라 중소제조 군집	이란 후 에너지 공급망 대체



③ 투자 지형의 구조적 변화 Resolution 10과 5가지 패러다임 전환

2026년 상반기 FDI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양적 증가가 아니다. 베트남 FDI의 질적 구조가 바뀌고 있다. 2026년 6월 8일 발효된 Resolution 10-NQ/TW는 이 변화를 법제화하는 신호탄이다.

▶ 변화 1: 단순 제조→에너지·AI·반도체 소재

10년 전 FDI는 봉제·신발·간단한 전자 조립이 주류였다. 지금은 LNG 발전소(\$22.9억)·AI 데이터센터(\$21억)·반도체 기판(\$5억)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베트남=저임금 조립기지"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 변화 2: 북부 집중→중부·남부로 지리적 분산

하이퐁·박닌·타이응우옌 중심의 북부 전자 클러스터에서 응에안(LNG·에너지)·하이퐁(반도체 기판)·카인호아(조선)·호찌민시(AI·부동산)로 분산이 뚜렷하다. HD현대 베트남 조선(카인호아)의 4번째 도크 착공이 상징적이다.

▶ 변화 3: 싱가포르 1위의 이면 — 실질 한국이 최대

싱가포르 FDI(42.1%) 중 상당 부분은 세금·법인 구조 최적화를 위해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투자한 "채널 FDI"다. 실질 투자 주체는 한국·미국·유럽·동아시아 기업이다. 한국이 직접 등록(31.4%) + 싱가포르 경유분을 합치면 사실상 최대 투자국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 변화 4: Resolution 10 - 기술이전 의무화

Resolution 10은 "단순 자본 유치에서 기술이전·혁신·국내 연계 FDI로" 전환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FDI 기업 기술이전 비율 40% 이상, R&D 투자 GDP 대비 3%, 국내 공급업체 연계 15% 이상이 목표다. 투자 인센티브는 기술이전 계획을 갖춘 기업에게 우선 부여된다.

▶ 변화 5: 글로벌 최저세(15%) 충격 흡수

OECD 글로벌 최저법인세(15%) 적용으로 기존 세금 인센티브의 효력이 줄었다. 베트남은 2026년 3월 신투자법을 발효해 세금 대신 현금 보조금·인프라 지원·토지 임대료 감면으로 인센티브를 전환했다. 대기업들의 투자 기준도 "세금 혜택"보다 "공급망 안정성·인력 수급"으로 이동하고 있다.

★ 편집부 종합 평가 — 2026 베트남 FDI, 어떻게 읽을 것인가

"등록 +61%는 기대치이고 집행 +11.2%는 현실이다. 두 수치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것이 투자 판단의 핵심이다."

베트남 FDI의 표면은 화려하다. 18년 만의 최고치, 한국 2위 굳히기, 에너지·AI라는 새 키워드. 그러나 세 가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첫째, 대형 LNG·인프라 프로젝트의 실행까지는 3~5년이 걸린다. 등록 급증이 곧 성장 가속이 아니다. 둘째, Resolution 10이 요구하는 기술이전·국내 연계는 기존 저비용 조립 모델 기업들에게 추가 비용이다. 셋째, 싱가포르 1위의 채널 투자 구조는 실질 투자 다양성을 과대표시한다.

한국 기업들에게 지금이 "2라운드 진입"의 타이밍이다. LNG·반도체 소재·AI 데이터센터처럼 Resolution 10이 요구하는 기술이전+혁신 요건을 충족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FTSE 신흥시장 편입(D-66일)이 자본 유입을 가속하는 구조에서 주식 간접 투자와 직접 사업 투자를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출처: 국가통계청(GSO)·VIR·Vietnam Briefing·B-Company FDI 리포트·The Investor·VietnamPlus (2026.H1) 환율: 1달러=1487.93원 / 1달러=26,255동 (2026.07.19 실시간)]

① 2026 상반기 FDI 헤드라인 총 등록 +61%, 실행 18년 만의 최고치

2026년 상반기 베트남의 총 등록 FDI는 346억 5,000만달러(약 51조6,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61% 급증했다. 이중 실제 집행된 FDI는 130억 3,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11.2%)로 18년 만의 최고치다. 총 2,013개 신규 프로젝트가 허가됐으며 등록 자본은 173억 9,000만달러(+87.2%)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등록과 집행의 온도 차

등록 FDI +61% vs 실행 +11.2%의 격차가 눈에 띈다. 두 가지 이유다. 첫째, 대형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LNG 발전소·항만·도시개발)가 등록은 했지만 실공사에는 시간이 걸린다. 둘째, 기존 전자·제조 공장 확장은 빠르게 집행됐다. 등록 급증은 "미래 투자 예약"이고 집행 증가는 "현재 생산 확장"이다.

▶ 제조업 집중도 유지, 에너지 부상

신규 등록 FDI의 61.9%(107억 6,000만달러)가 제조·가공업에 집중됐다. 2위는 부동산(7.4%)이지만 에너지(LNG 발전) 투자가 새롭게 두드러지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증액 프로젝트도 541개·110억 4,000만달러(+23.5%)로 기존 투자자들의 베트남 확신도 높아졌다.

② 이번 반기 메이저 투자 프로젝트 에너지·AI·반도체 소재·부동산 - 네 가지 새 흐름

이번 상반기 FDI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 기업군의 다양화다. 과거 삼성·LG 중심의 전자 제조 편중에서 에너지·데이터 인프라·반도체 소재·부동산 복합 개발로 영역이 확장됐다.

▶ SK이노베이션 컨소시엄 - 뽐람 LNG 발전소(응에안) \$22.9억(약 3.4조원)

상반기 최대 단일 프로젝트다. PV파워(베트남 국영)·응에안슈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1,500MW 규모 LNG 발전소를 개발한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 다변화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한-베 경제포럼(4월)에서 투자 등록증을 공식 수령했다.

▶ 롯데그룹 - 에코스마트시티(호찌민) \$22.8억(약 3.4조원)

오랫동안 지연됐던 롯데 에코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투자 규모를 약 3배로 늘렸다. 팻따 리얼에스테이트(HoSE:PDR)와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으며 주거·상업·호텔 복합 개발로 호찌민시 핵심 부동산 프로젝트로 부상했다.

▶ LG이노텍 - 반도체 기판(하이퐁) \$5억(약 7,435억원)

LG이노텍이 하이퐁 당국과 MoU를 맺고 반도체 기판(Substrate)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AI 반도체 수요 폭발로 기판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베트남 생산 거점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 폭스콘(Foxconn) - 하노이 신본부 개관, 누적 \$40억(약 5.9조원)

4월 하노이에 새 본사를 공식 개관했다. 박닌 Fulian·FII 자회사 공장 포함 베트남 누적 투자액이 40억달러를 넘었다. 애플 아이폰·에어팟 생산의 핵심 거점이자 대만-베트남 공급망 심화의 상징이다.

▶ AI 데이터센터(호찌민 편푸중 산단) \$21억(약 3.1조원) - 검토 중

투자자 미공개지만 호찌민시 당국이 적극 검토 중인 AI 전용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다. FTSE 편입 기대·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에 맞춰 AI 인프라 수요가 FDI 어젠다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

컨터(Cần Thơ) 메가허브

메콩 델타의 새 수도, 세 개 성이 하나로 합쳐졌다

2025년 7월 1일, 베트남 지도에서 하우장(Hậu Giang)과 속짱(Sóc Trăng)이 사라졌다. 두 성이 컨터시에 흡수됐기 때문이다. 하룻밤 사이에 컨터는 면적 6,360km², 인구 420만 명의 메콩 델타 최대 도시로 거듭났다. 이제 베트남 정부가 이 도시에 붙인 이름은 "메콩 델타의 심장이자 성장 엔진"이다. 과연 그 이름이 빈말이 아닌지, 지금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있다.

▶ 컨터 메가허브 핵심 지표 (2025.07.01 합병 이후)

합병 후 면적 · 인구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2030 목표 1인당 소득	2026년 1분기 성장률
6,360km ² · 420만명	124개 / \$74.5억 (11조원)	\$8,400 (약 1,200만원)	7.02% (메콩 2위)

① 왜 세 성을 하나로 합쳤나 - 단순 행정 개편이 아니다

베트남 정부가 전국 63개 성·시를 34개로 줄이는 대대적인 행정 통합을 단행했다. 메콩 델타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이 컨터·하우장·속짱의 합병이다. 세 지역을 합치면 면적은 서울의 10배, 인구는 부산의 두 배가 넘는다. 지도 한 장을 바꾼 게 아니라 성장 전략을 바꾼 것이다.

베트남 정부의 논리는 명확했다. 컨터 단독으로는 "메콩 델타의 수도" 역할을 하기엔 너무 작았다. 도로가 좁고, 항만이 얕고, 혼자서는 대형 물류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웠다. 속짱을 합치면 바다가 생긴다. 쩌데(Trần Đề) 심해항이 컨터의 항만이 된다. 하우장을 합치면 농업 배후지가 생긴다. 세 지역의 강점이 합쳐져야 비로소 진짜 "지역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레 민 흥 총리는 "컨터가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조정 능력, 연결성,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쩌 타이 먼은 "새로운 리더십 마인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새로운 개발 열망의 출발"이라고 선언했다. 합병이 된 지 1년이 됐다. 이제 이 선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때다.

② 합병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기회와 현실

숫자부터 보면 나쁘지 않다. 2026년 1분기 성장률 7.02%로 메콩 델타 5개 도시 중 2위를 기록했다. 2025년 한 해 신규 등록 기업이 4,600개, 등록 자본은 1조동(\$10억 이상)이 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프로젝트 124개, 총 등록 자본 74억 5,000만달러(약 11조원)다. 싱가포르가 최대 투자국으로 \$3.2억(약 4,797억원)을 투자했다. VSIP 컨터 산업단지(베트남-싱가포르 합작, 294헥타르·\$1.4억)가 그 대표 프로젝트다.

그런데 솔직한 평가도 필요하다. 메콩 델타는 전국 농업 생산의 40%를 책임지는 "베트남의 밥그릇"이지만, 이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물류 비용이 상품 가치의 18~22%에 달한다.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컨터 항만이 연간 처리하는 화물이 1,200만~1,500만톤인데, 홍콩과 싱가포르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JETRO 대표는 "컨터는 아시아 물류 허브가 될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외국인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2026년 6월 싱가포르 기업인 대표단이 컨터를 방문해 투자 기회를 조사했다. 같은 달 "컨터를 메콩 델타의 물류 허브로 만드는 해법" 과학 콘퍼런스가 열렸다. 도시 수장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도 늘기 시작했다.



③ 한국에게 어떤 기회가 있나 - 농식품에서 스마트시티까지

컨터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농업이다. 메콩 델타는 베트남 쌀 수출의 90%, 수산물 수출의 60%, 과일 수출의 70%가 나오는 곳이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농산물이 지금은 가공 없이 원물 형태로 팔린다. 부가가치가 낮다. 고부가가치 농식품 가공 공장, 냉동·냉장 물류 인프라, 스마트 농업 기술 - 이 세 가지가 컨터에서 한국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CJ제일제당·농심·풀무원이 이미 베트남 식품 시장에 들어와 있지만 메콩 델타 생산 기지와 연결은 아직 초기 단계다.

두 번째는 물류와 항만이다. 쩌데 심해항이 완성되면 컨터는 처음으로 국제 컨테이너 선박이 직접 들어오는 항구를 갖게 된다. 지금은 모든 화물이 호찌민시 항만을 거쳐 나가는데, 육로 이동 비용만으로 경쟁력이 깎인다. 한국 해운·항만 기업들과 냉동 컨테이너 물류 전문 기업들에게 심해항 개발 초기 진입 기회가 열려 있다.

세 번째는 스마트시티다. 디지털 경제가 컨터 GRDP의 7.4%를 차지하는데, 정부는 이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4개 대학과 주요 연구기관이 있어 IT 인력 공급도 가능하다. "메콩 델타의 지식 허브"로 키우겠다는 정치국 결의(Resolution 57)도 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IoT 농업 기술,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업들에게 컨터는 동남아에서 아직 경쟁이 가장 낮은 시장 중 하나다.

★ 편집부 평가 - 컨터는 지금 가야 하는 곳인가

컨터의 가장 큰 장점은 "아직 덜 알려졌다"는 것이다. 하노이와 호찌민시는 한국 기업들로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 다낭은 관심이 폭발했다. 그런데 메콩 델타에는 아직 빈자리가 많다. 경쟁이 낮다는 것은 선점 프리미엄이 크다는 뜻이다.

솔직한 한계도 있다. 물류 비용 18~22%라는 문제는 고속도로가 완공돼야 풀린다. 심해항은 2030년 이후 이야기다. 행정 합병은 됐지만 세 지역의 규정·관행이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느릴 수 있다. "잠재력"과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시장" 사이의 거리는 아직 있다.

그럼에도 2026~2028년은 컨터에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다. 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부지를 확보하고, 심해항이 생기기 전에 물류 파트너를 만들고, 스마트시티 예산이 풀리기 전에 솔루션을 제안해 두는 것 - 이 모두가 "먼저 들어간 사람이 가져가는 기회"다. 농식품 가공과 냉물류, 항만 물류, 스마트 농업 기술이 한국이 가장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

▶ 컨터 메가허브 주요 인프라 현황 및 계획

인프라	현황	완공 목표	의미
차우독-컨터-속짱 고속도로	공사 중	2027~2028년	메콩 델타 최초 동서 고속도로
쩌데(Trần Đề) 심해항	설계 · 허가 진행 중	2030년 이후	속짱 합병으로 내륙 컨터가 바다를 얻음
컨터-까마우 고속도로	공사 중	2026~2027년	델타 남단 연결·농산물 물류 혁신
VSIP 컨터 산업단지	294ha 운영 중	2단계 확장 예정	베트남-싱가포르 합작 첨단 산업 거점
컨터 국제공항	운영 중 (연 500만명)	확장 계획 중	직항 노선 확충 필요

FTSE D-59일, 빈흠즈 배당락 충격파, 금값 반등

7월 21~24일 베트남 금융시장 주간 분석

이번 주 베트남 금융시장은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했다. 7월 22일 빈흠즈(VHM) 배당락 충격으로 VN-Index가 급락하며 주간 내내 회복을 모색했다. 한국에서는 원화가 5월 초 이후 최강세를 지속하며 1,465~1,478원 범위에서 움직였다. 국제 금값은 \$3,998에서 \$4,119까지 반등하며 다시 \$4,100대를 회복했다. 9월 21일 FTSE 신흥시장 편입까지 D-59일. 이 숫자가 모든 불안을 버터주는 닳이 됐다.

VN-Index (주간 흐름)	SJC 금괴 (7.23 매도가)	달러-원 (이번 주)	달러-동 (안정 유지)
1,786→1,686p 주간 - 5.6% 조정 FTSE 편입 D-59일 배당락+실망매물	1억4600만동 약 818만원 국제금 \$4,119/온스 7.21 저점 대비 반등	1,471.55원 5월 초 이후 최강세 주간 범위 1,465~1,478원 원화강세 지속	26,255동 비엠펜뱅크 매도 중앙은행 기준 24,827동 외환 개입 지속

① VN-Index - 배당락 충격에서 FTSE 기대로의 줄다리기

이번 주 VN-Index는 전형적인 "충격 후 방향" 장세였다. 7월 22일 빈흠즈(VHM)가 베트남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24조 6,400억동 배당을 지급한 당일, 배당락 효과와 차익실현 매물이 동시에 쏟아지며 지수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주초 1,786p 안팎에서 출발한 지수는 주말인 7월 24일 1,686p 내외까지 밀리며 주간으로 약 100p(-5.6%) 하락했다.

하락의 배경은 배당락 하나가 아니었다.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결론이 나왔지만 "두 자릿수 성장을 위한 병목 제거"라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실망감이 겹쳤다. 구체적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인식이다. 여기에 미국-베트남 무역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아 수출 관련주 심리도 무거웠다.

그러나 이 흐름에 역행한 집단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팔아치우는 동안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다. 9월 21일 FTSE 신흥시장 편입(D-59일)을 앞두고 패시브 펀드들의 선제적 매수가 지수 하단을 받쳐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안타증권 베트남은 1,650~1,700p 구간이 단기 지지선이며, 8월 중 FTSE 편입 기대 자금이 본격 유입되면 반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VN-Index가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10% 이상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5월에는 1,937p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조정은 고점 대비 12~13% 수준으로, 신흥시장 편입 이전의 "건강한 숨 고르기"로 해석하는 시각과 "구조적 조정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리고 있다. 단기 방향성은 9월 미 연준 회의와 중동 정세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③ 달러-원 · 달러-동 환율 - 원화 강세 지속, 동화 안정

달러-원 환율이 이번 주에도 강세를 이어갔다. 인베스팅닷컴 기준 7월 24일 1,471.55원으로 5월 초 이후 최강 수준이다. 주간 범위는 1,465.76~1,478.54원으로 지난주(1,465~1,491원)보다 좁아지며 강세 기조 속에 안정되는 모습이다. 원화 강세의 배경은 세 가지다. 첫째, 7월 1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상(3.50%→3.75%)이 원화 매력을 높였다. 둘째, 2분기 GDP가 0.6% 성장해 한국은행 예상(0.2%)을 크게 웃돌며 경제 펀더멘털 신뢰를 강화했다. 셋째, 반도체·AI 관련 수출 호조로 외국인의 한국 자산 매수세가 이어졌다.

달러-동 환율은 이번 주도 비엠펜뱅크 기준 25,845동(매수)~26,255동(매도)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중앙은행 기준환율은 24,827동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베트남 외환 당국이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개입으로 동화 안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화 안정은 베트남의 수출 경쟁력 유지와 외국인 투자 심리 안정 모두에 중요하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 강세는 양날의 칼이다. 베트남 현지 생활비·사업비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면 베트남 동화 자산의 원화 환산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기도 하다. 달러-원 1,471원은 52주 범위(1,365~1,562원)의 하단에 위치해 있어 추가 원화 강세 여지도 있다. 베트남 사업 운영 자금을 달러로 보유할지, 원화로 전환할지 전략을 재검토할 시점이다.

★ 편집부 시장 종합 시각 - 이번 주의 키워드는 "인내"다

배당락 충격, 전원회의 실망, 미-베 협상 불확실성 - 이번 주는 나쁜 소식이 겹쳤다. 그러나 VN-Index가 1,686p에서 버틴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떠받쳤기 때문이다. FTSE 편입(D-59일)이라는 구조적 대형 이벤트가 단기 악재를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다.

금값은 \$4,100 탈환에 성공했다. 이란 긴장 재부각이 안전자산 수요를 다시 살렸다. \$4,000~\$4,200 박스권에서 방향을 잡는 중이며, 9월 Fed 결정이 다음 분수령이 될 것이다. SJC 프리미엄이 꾸준히 줄어드는 것은 베트남 금 시장 정상화의 신호다.

원화는 5월 초 이후 최강세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원화를 끌어올리고 있다. 베트남 투자자에게는 환 헤지 비용 재검토, 달러 자산 구성 재점검의 타이밍이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숫자는 VN-Index 1,686p가 아니라 FTSE D-59일이다. 이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까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다.

[출처: 트레이딩이코노믹스 VN-Index (2026.07.24) · 블룸버그 VINDEX:IND (2026.07.23) · Vietnam.vn SJC 금값 (2026.07.21~23) · 인베스팅닷컴 USD/KRW (2026.07.24) · 비엠펜뱅크 환율 · 유안타증권 베트남 · J.P. 모건 글로벌 리서치 환율: 1달러=1471.55원 / 1달러=26,255동 (2026.07.24 기준)]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병원을 고르나

제1편: 대도시 국립병원 - 번호표를 들고 새벽부터 줄 서는 이유



① 베트남에는 "동네 병원"이 없다 - 직접 대형병원으로 가는 문화

베트남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1차 의료(primary care)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동네 내과를 찾고, 심각한 경우에 대형병원 진료의뢰서를 받아 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베트남에서는 이 단계가 없다. 환자들은 첫 번째 의심 증상부터 바로 대형 국립병원 문을 두드린다. 전문가들이 "1차 의료의 붕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이런 문화가 형성된 데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통일 이후 베트남 의료 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국립병원 중심으로 구축됐다. 개인 의원은 1990년대 도이머이 개혁 이후에야 법적으로 허용됐지만, 수십 년간 "믿을 수 있는 병원은 국립병원"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PMC 학술 저널이 2023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 국립병원 원장은 "베트남 사람들은 오랫동안 공공 부문을 민간보다 훨씬 더 신뢰해왔다. 이것이 베트남 사람들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결과는 극단적인 쏠림이다. 미국 무역부(U.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에 따르면 하노이·호찌민시의 대형 국립병원들이 전국 환자의 60%를 처리하며, 정원의 두 배 이상으로 운영된다. 복도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눕거나, 한 침대에 두 명이 누워 치료받는 장면이 아직도 낯설지 않다.

▶ 하노이·호찌민시·다낭 대표 국립병원 (2026년 기준)

병원명	도시	규모	전문 분야 강점	브랜드 특징
바흐마이 (Bach Mai) 국립병원	하노이	병상 2,000+ 의사 2,700+	심장·호흡기·신경과 종양학·감염병	베트남 최대·최고(最高) 국립병원으로 공인 1911년 설립, JCI 인증
비엠틡(Việt Đức) 우호병원	하노이	병상 1,000+ 의사 1,000+	외과·정형외과·외상 복합 수술	1906년 설립 외과 명문 수술 난이도 최고 수준 외과 지망 의사의 성지
하노이의과 대학교 부속병원	하노이	병상 700+	내과·신경과 의학교육·연구	1902년 설립 베트남 의학교육 발원지 교수 직함 의사 집중
쩌 라이(Chợ Rẫy) 국립병원	호찌민시	병상 4,000+ 의사 1,800+	응급·외과·신장 심장·신경과	남부 최대 거점병원 1900년 설립 JCI 인증 베트남 최대 병상
뚜드(Từ Dũ) 산부인과병원	호찌민시	병상 1,200+	산부인과·신생아 불임치료	베트남 최대 산부인과 연간 출산 8만명 이상 산모들의 1지망 병원
다낭시 종합병원	다낭	병상 1,000+	외과·내과·응급 중부권 의료 거점	중부 최대 국립병원 다낭·후에 환자 집중 2000년대 이후 현대화

② "교수님"을 만나야 낫는다 - 베트남의 명의 신화

베트남 환자들이 대형 국립병원을 고집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교수"다. 베트남에서 "자오 스(Giáo sư·교수)" 또는 "포 자오 스(Phó Giáo sư·부교수)"라는 호칭은 단순한 학문적 직위가 아니다. 의학 분야에서 이 칭호를 가진 의사는 사회적으로 의술의 최고봉으로 인정받는다.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말한다.

이 문화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환자들은 특정 교수의 진료 일정을 인터

넷으로 검색하고, 그 교수가 있는 날에 맞춰 병원을 방문한다. 어떤 경우에는 "3일 후 교수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그날 새벽부터 대기하기도 한다. 병원 내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이번 주는 어느 교수가 외래 진료를 한다"는 정보가 환자 커뮤니티에서 공유된다. 온라인 포럼과 페이스북 그룹에서 특정 의사에 대한 후기가 수천 개씩 달린다.

여기에 "소개"의 힘이 더해진다. 유명 교수에게 진료받으려면 지인 소개가 매우 유리하다. 병원 직원, 의대 졸업생, 다른 의사를 통한 연결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여준다. 이 비공식 네트워크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의료 접근성과 직결되는 베트남 의료의 독특한 구조다. 돈보다 인맥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바흐마이 병원의 경우 일부 유명 교수 진료실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줄이 서기 시작해 오전 중에 예약이 마감된다. 환자들은 진료 자체보다 "교수에게 한 번 보여줬다"는 사실에서 심리적 안도를 얻기도 한다.

③ 빛과 그림자 - 국립병원 쏠림의 현실적 문제들

국립 대형병원에 대한 압도적 신뢰는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 하노이·호찌민시의 거점 병원들은 정원의 두 배로 운영되는 것이 일상이다. 2014년에는 하노이의 과밀 병원에서 환자 아이들이 침대를 공유하다 홍역이 집단 전파돼 120명의 어린이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과밀이 단순한 불편이 아닌 생명 문제임을 보여준 사례다.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처리하는 환자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부 외래 진료실에서 의사 한 명이 하루 100명 이상을 보는 경우도 보고된다. 진료 시간이 5분 내외로 줄어 들 수밖에 없다. 친절할 설명, 충분한 문진, 감정적 배려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다. 오히려 거칠거나 무례한 직원 태도가 일부 환자들이 민간 병원으로 눈을 돌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장비의 문제도 있다. 미국 무역부에 따르면 많은 국립병원의 의료 장비가 노후화됐고 수술실·중환자실 장비가 부족하다. 최고 수준의 의사가 있어도 최신 장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시술이 있다. 이것이 복잡한 수술이나 중증 질환에서 일부 환자들이 해외(태국·싱가포르)나 국제병원으로 이동하는 이유다.

★ 편집부 평가 - 베트남 의료 문화를 이해하면 시장이 보인다

베트남 환자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유는 단순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수십 년간 쌓인 신뢰와 권위의 구조, 교수·명예에 대한 문화적 믿음, 그리고 1차 의료 부재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복합적 결과다.

한국 의료·헬스케어 기업들에게 이 구조는 두 가지 신호를 준다. 첫째, 국립병원에 납품하거나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베트남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신뢰를 빌리는 방법이다. 바흐마이·쩌 라이와의 장비 공급 계약, 의술 협력 프로그램은 베트남 전체 의료 시장 진입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둘째, 대형 국립병원의 과밀과 서비스 한계는 프리미엄 의료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제2편에서 다룰 국제병원들이 성장하는 배경이다.



사파마 힐링캠프
SAFAMA HEALING CAMP

14세기부터 19세기 명화
숲속의 야외오픈 프로젝트

모나리자
에서
르누아르
까지

2026. February. 14
2026. August. 14

세계명화 대전

서양 미술사 600년 레플리카 전을 엿니다

2024 신토지법과 베트남 토지 공시지가 대개혁

5년 고정에서 매년 산정으로 - 하노이 · 호찌민시 핵심 지역 공시지가 연도별 추이

베트남의 토지 공시지가(방자닷·Bảng Giá Đất)는 2024년 신토지법 발효 전까지 5년마다 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고정"이 단순하지 않다. 기본 공시가에 조정계수(K·Hệ số điều chỉnh)를 매년 곱해 실질 공시가를 올리는 이중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수치가 왜곡된다. 2024년 신토지법(제159조)은 이 복잡한 이중 구조를 없애고, 2026년부터 매년 직접 시장가에 근거한 공시가를 고시하도록 바꿨다. 아래에 확인된 수치만 담았다.



① 2024 신토지법 제159조 -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1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신토지법 제159조 3항은 "첫 번째 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 발표되며 이후 매년 업데이트된다"고 명시한다. 이것은 미국 의회 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이 확인한 법률 조항으로 정확하다.

구(舊) 체계의 핵심 문제는 "겉으로는 5년 고정이었지만 실제로는 K계수(조정계수)로 매년 조금씩 올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호찌민시 동코이 거리의 기본 공시가는 결정 02/2020에서 1억6200만동/㎡로 결정됐다. 그런데 2023년에 결정 56/2023으로 K계수 3.5를 적용하면 실효 공시가는 5억6700만동/㎡로 뛰어오른다. 이 복잡한 이중 구조를 신토지법이 없앤 것이다.

2024년 10월 31일 호찌민시는 결정 79/2024를 발효시켜 동코이 등 핵심 거리의 공시가를 6억8720만동/㎡로 직접 고시했다. 이것이 K계수 체계를 통합해 단순화한 결과다. 2026년 1월 1일 신규 고시에서도 이 수치가 유지된 것은, 이미 2024년 조정 때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 호찌민시(TP.HCM) 동코이 · 군1 핵심 거리 공시지가 연도별 추이 (정부 공식 수치)

K계수(조정계수) 주의 호찌민시는 기본 공시가(결정 02/2020)에 매년 K계수를 곱해 실질 공시가를 산출했다. 아래 표는 K계수 적용 후 실질 공시가가 기준이다.

거리 · 지역	2020~2022 (결정 02/2020 K계수=1.0)	2023~2024.10 (결정 02/2020× K계수=3.5)	2024.10.31~2025.12 (결정 79/2024 K계수 통합 직접고시)	2026.1.1~ (2026 신규 고시)	2026 시장 추정가 (보수적 · 참고용)
동코이 · 응우옌후에 · 레러이 (군1 최고가 거리)	1억6200만동 (약 913만원)/㎡	5억6700만동 (약 3,196만원)/㎡	6억8720만동 (약 3,874만원)/㎡	6억8720만동 (약 3,874만원)/㎡ (시장 반영 결과 동일)	약 9억~11억동 (약 5,073만~6,203만원)/㎡ ※ 보수적 추정
함응이 · 티사익 (군1 준핵심)	약 1억2000만동 (약 676만원)/㎡	약 4억2000만동 (약 2,369만원)/㎡	4억2900만동 (약 2,418만원)/㎡	4억2900만동 (약 2,418만원)/㎡	약 6억~8억동 (약 3,382만~4,510만원)/㎡
마이티부이 · 응오득께 (군1 중간)	약 1억동 (약 564만원)/㎡	약 3억5000만동 (약 1,974만원)/㎡	3억2500만동 (약 1,832만원)/㎡	3억2500만동 (약 1,832만원)/㎡	약 4억~5억동 (약 2,255만~2,819만원)/㎡

▶ 하노이(Hà Nội) 핵심 지역 공시지가 연도별 추이 (정부 공식 수치)

하노이 체계 하노이는 K계수 없이 결정 30/2019로 2020~2024년 기본가를 5년 고정했다. 2025년에 결정 45·46/2024 조정계수를 적용했으며, 2026년부터 결정 254/2025로 신규 고시했다.

리 · 지역	2020~2024 (결정 30/2019 5년 고정)	2025 (조정계수 결정 45 · 46/2024)	2026.1.1~ (결정 254/2025 신규 고시)	인상배율 (2020→2026)	2026 시장 추정가 (보수적 · 참고용)
항다오·항낭·레타이포 (환끼엠 구시가·최고가)	1억8790만동 (약 1,059만원)/㎡	조정계수 적용 (약 4억~5억동 추정)	7억200만동 (약 3,957만원)/㎡	+3.7배	약 8억~12억동 (약 4,511만~6,767만원)/㎡ ※ 보수적 추정
바꾸이에우·딘띠엔호앙 · 하이바쭙 (환끼엠 주요)	약 1억5000만동 (약 846만원)/㎡	조정계수 적용 (추정)	7억200만동 (약 3,957만원)/㎡	+4.7배	약 6억~10억동 (약 3,382만~5,638만원)/㎡
꺼우저이·탄수언·띠이호 (서부 신시가지)	약 1억동 (약 564만원)/㎡	조정계수 적용 (추정)	약 3억2500만동 (약 1,832만원)/㎡	+약 3.2배	약 3억~5억동 (약 1,691만~2,819만원)/㎡
동아인·지아람 (교외 개발 예정지)	약 3000만~5000만동 (약 169만~282만원)/㎡	소폭 조정	최대 +26% 약 4000만~6500만동	+약 1.3~2배	약 1억~2억동 (약 564만~1,128만원)/㎡

② 시장 추정가-근거와 한계

이 기사에서 제시하는 시장 추정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찌민시 자연자 원환경국이 2026년 공시지가 책정 시 의뢰한 전문 컨설팅사 현장 조사 결과 동코이·응우옌후에 거리의 조사가격은 약 9억5430만동/㎡이었다. 이것이 가장 공식적인 시장가 추정치다. 둘째, 동 부서는 결정 79/2024가 "시장가의 약 50%"를 반영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역산하면 시장가는 약 13억7400만동/㎡ 수준이 된다. 셋째, 호찌민시 당국은 2026년 공시가 목표를 "시장가의 60%"로 설정했으며, 이를 역산하면 시장가는 약 11억4500만동/㎡이 된다.

이 기사는 위 세 가지 추정 중 가장 보수적인 컨설팅사 현장 조사 결과(약 9억5430만동)를 기반으로 "약 9억~11억동" 수준을 시장 추정 범위로 제시한다.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나타나는 17억~18억동은 실제 거래가와 크게 다를 수 있어 이 기사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베트남 토지 시장은 거래 비공개 관행이 강해 실거래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 수치는 참고용이다.

★ 편집부 평가 —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이 기사에서 확실히 확인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2024 신토지법 제159조에 따라 2026년부터 베트남 공시지가는 매년 산정된다. 둘째, 호찌민시 동코이 거리 2026년 공시가는 6억8720만동/㎡(약 3,874만원), 하노이 환끼엠 핵심 거리는 7억200만동/㎡(약 3,957만원)이다. 이 수치는 정부 결정문과 Savills Vietnam 보고서가 동일하게 확인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시장 실거래가다. 이 기사는 호찌민시 당국이 의뢰한 전문 컨설팅사 현장 조사 결과(약 9억5430만동/㎡)를 보수적 추정 근거로 채택했다. 그보다 높은 호가가 시장에 존재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중요한 구조적 포인트: 호찌민시의 경우 2020~2022년에는 기본 공시가가 그대로였지만, 2023년 K계수 3.5 적용으로 공시가가 사실상 3.5배 올랐다. 신토지법은 이 K계수 방식을 없애고 직접 고시 방식으로 단순화했다. 2026년 동코이 공시가가 2024년과 동일한 것은 이미 2024년에 대폭 조정됐기 때문이다.

RMIT 베트남 (RMIT University Vietnam)

베트남 최초 완전 외국인 소유 대학교 - 25년 차의 성적표

1998년, 베트남 정부가 호주 멜버른의 공과대학에 특별한 제안을 했다. "우리나라에 와서 대학을 만들어 달라." 이 제안을 수락한 RMIT(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는 2001년 호찌민시에서 30명의 학생으로 첫 수업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RMIT 베트남은 3개 캠퍼스에 1만 2,000명의 학생을 품은 베트남 최대 국제대학교가 됐다. 베트남에서 완전 외국인 단독 소유로 운영되는 최초의 대학이라는 이 기록은 지금도 유효하다.

설립 · 개교	전체 재학생	교직원	QS 세계순위 (본교 RMIT 멜버른)
2000년 설립 2001년 개교 베트남 최초 외국인 단독 소유	약 12,000명 호찌민 9,000~10,000명 하노이 1,400명	약 1,600명 (FTE) 국내외 교수진 혼합	세계 123위 (2025 QS) 호주 내 10위 5스타 대학

① 누가 투자했나 - 호주 정부의 글로벌 교육 전략

RMIT 베트남의 투자자이자 운영자는 RMIT University 단 하나다. 호주 멜버른에 본부를 둔 RMIT University는 1887년에 설립된 호주 최고(最古) 공과 및 응용과학 대학 중 하나다. 호주 정부의 국제 고등교육 전략의 일환으로 1994년 이후 해외 캠퍼스 설립에 적극 나섰으며, 베트남은 그 첫 번째 아시아 거점이었다.

1998년 베트남 정부가 RMIT를 공식 초청했다. 외국인 투자 대학을 통해 자국 인재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 국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었다. 2000년 베트남 계획투자부로부터 학부·대학원 교육 운영 허가를 받았고, 이 투자 허가는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100% 단독 소유하는 대학에 발급된 것이었다.

RMIT 본사는 멜버른 캠퍼스와 동일한 학사 프로그램을 베트남에서 운영한다. 베트남 RMIT 학생들은 졸업 시 멜버른 본교 명의의 학위를 받는다. 즉 베트남에 앉아서 호주 대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구조다. 이것이 RMIT 베트남의 가장 강력한 셀링 포인트다.

② 3개 캠퍼스 - 호찌민 · 하노이 · 다낭

호찌민시 사이공사우스 캠퍼스(7군 푸미흥 지역)가 본부다. 2005년 완공된 전용 캠퍼스로 국제 수준의 강의동·도서관·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재학생이 약 9,000~10,000명으로 베트남 전체 재학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경영·IT·커뮤니케이션·패션·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을 운영한다.

하노이 캠퍼스는 2004년 개설됐다. 재학생 약 1,400명 규모로 영어학·IT·회계·전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낭 캠퍼스는 2009년 개설된 소규모 캠퍼스로 건축·도시계획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공에 강점이 있다.

학생 구성은 베트남인이 대다수지만 호주·한국·일본·중국 등 30개국 이상에서 국제 학생이 재학 중이다. 전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국제 학생이 베트남에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동시에, 베트남 학생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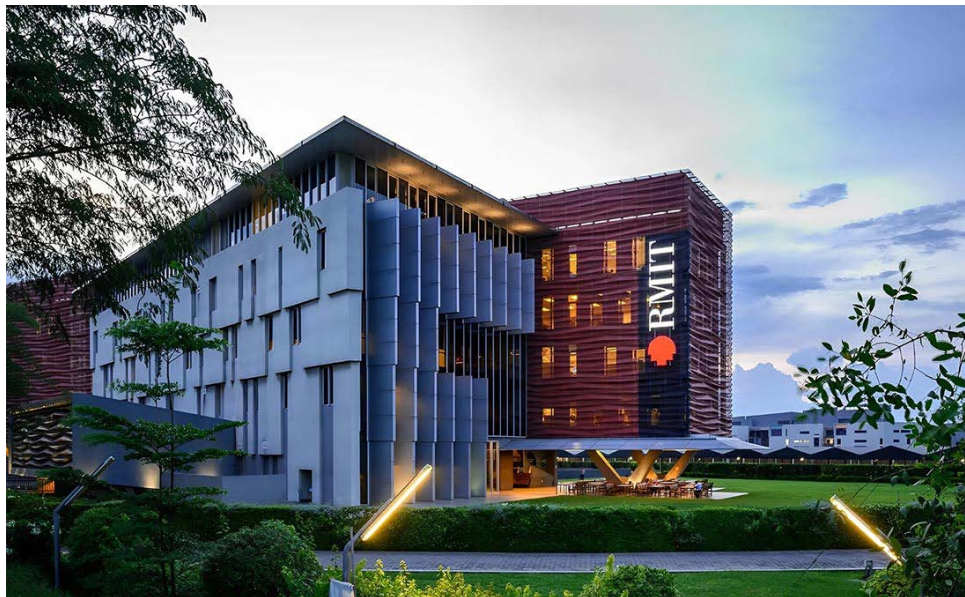
▶ RMIT 베트남 주요 전공 프로그램 (2026년 기준)

분야	대표 전공	강점·특징	강점·특징 캠퍼스
비즈니스 · 경영	경영학·마케팅·금융 회계·국제비즈니스	취업을 최상위/다국적기업 선호 인턴십 프로그램 강력	호찌민·하노이
정보기술(IT)	컴퓨터사이언스 사이버보안·데이터 사이언스	AI·빅데이터 커리큘럼 강화 삼성·MS·아마존 파트너십	호찌민·하노이
커뮤니케이션	전문커뮤니케이션 광고·미디어·PR	QS 세계 100위권 전공 국제 미디어 실무 중심	호찌민·하노이
디자인 · 패션	패션머천다이징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베트남 유일 수준 패션 전공 국제 패션산업 취업 연계	호찌민
건축 · 도시 계획	건축학 도시 및 지역계획	다낭 개발 프로젝트 연계 실습 중심 커리큘럼	다낭 중심

③ 학비 - 베트남에서 가장 비싼 대학 중 하나

RMIT 베트남의 학비는 베트남 국제대학 중 최고가 구간에 속한다. 2026년 기준 학부 프로그램은 연간 약 3억 2,000만~3억 6,000만동(약 1,777만원~2,369만원·1달러=1,480.59원 기준)이다. 달러로 환산하면 연 약 1만 2,000~1만 6,000달러다. 같은 기간 베트남 국립대학교의 평균 학비(연 1,500만~3,000만동)와 비교하면 10~28배 수준이다.

베트남 사립대 중 최고가인 호찌민시 일부 사립대(연 약 3억5,000만동·약 1,977만원)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졸업 시 받는 학위의 국제적 위상이 전혀 다르다. RMIT 베트남 학위는 호주 정부가 공인한 RMIT 멜버른 학위와 동일하며, 베트남 교육훈련부도 공식 인정한다.



RMIT는 장학금 제도도 적극 운용한다. 지금까지 누적 5,660억동(약 320억원) 이상을 1,849명 이상의 학생에게 지급했다. 2025년에는 박사(PhD) 장학금에 AUD 800만달러를 투자하며 연구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성적 우수자·저소득층·가족 재학 할인 등 다양한 지원 경로가 있다.

④ 베트남 사회에서의 평가 - "비싸지만 인정받는 학위"

베트남에서 RMIT 졸업생에 대한 기업 인식은 긍정적이다. 특히 다국적기업(MNC)·외국계 기업 채용에서 RMIT 학위 소지자가 우대받는다는 것이 현지 채용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졸업 후 1년 내 취업률은 96%로 공식됐다. 베트남 정부도 20년 연속 골든드래곤상을 수여하며 공식 인정하고 있다.

평가에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다. 긍정적 평가는 명확하다. "영어로 배우는 국제 표준 커리큘럼", "멜버른과 동일한 학위", "실무 중심 교육"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 글래스도어(Glassdoor) 기준 직원 만족도 4.4점(5점 만점)으로 교육 기관 평균(3.7점)을 크게 웃돈다. 재학생들도 캠퍼스 환경과 동아리 활동, 국제적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한다.

반면 비판도 있다.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가격 대비 베트남 교수진의 질"이다. 일부 재학생과 졸업생 커뮤니티에서 "강의 수준이 멜버른 본교와 완전히 같지 않다", "베트남 내 취업 시장에서 높은 학비만큼의 프리미엄이 충분히 나타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비가 베트남 중산층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점도 접근성의 한계로 지적된다.

★ 편집부 평가 - RMIT 베트남 — 25년 실험의 결론

RMIT 베트남이 25년간 베트남에 남긴 것은 단순히 수만명의 졸업생이 아니다. "베트남에서 국제 수준의 고등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선례다. 이 성공이 이후 BUV(빌라노바대) · VGU(독일-베트남대) · PHENIKAA 등 다른 국제대학들의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

RMIT 베트남의 한계도 분명하다. 학비 장벽으로 인해 베트남 중상위층 이상만 접근할 수 있는 엘리트 교육 기관으로 머물 가능성이 있다. 졸업장의 국제적 위상과 베트남 내 실제 취업 프리미엄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다음 25년의 과제다.

한국 기업들에게 RMIT 베트남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채용 파이프라인이다. IT · 경영 · 커뮤니케이션 분야 RMIT 졸업생은 베트남 현지 채용 시장에서 영어 능통자 · 국제 감각 보유자로 선호된다. 둘째, 파트너십 기회다. RMIT는 Siemens · AWS · Microsoft와 산학 협력을 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IT · 제조 기업들이 RMIT와 연계해 채용 · 연구 · 인턴십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입 전략이 될 수 있다.

[출처: RMIT Vietnam 공식 웹사이트(rmit.edu.vn) · RMIT 호주 본교(rmit.edu.au) · RMIT Vietnam 연혁(Our History)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 · Standyou 학비 비교 · Vietnam.vn 학비 기사(2025.07) · Gold Star Education RMIT Vietnam 분석 · AusCham Vietnam · Glassdoor RMIT Vietnam 직원 리뷰(435건) · 베트남 교육훈련부 공인 확인]

킨도(Kinh Do)와 키도(KIDO)

브랜드를 팔고, 다시 베이커리로 돌아온 베트남 식품 대기업의 30년

1993년, 호찌민시의 작은 과자 가게에서 시작했다. 창업 자본은 금 0.3돈(약 1달러)이었다. 그 가게가 베트남 최대 제과·식품 기업으로 성장했다가, 미국 식품 공룡에게 브랜드를 팔았다가, 다시 베이커리로 돌아오는 굴곡진 30년을 걸어왔다. 킨도(Kinh Do)와 키도(KIDO) - 두 이름이 사실 하나의 기업 이야기다.

▶ KIDO 그룹 핵심 지표 (HoSE: KDC · 2025년 실적 기준)

2025 매출	2025 세전이익	아이스크림 점유율	마가린 점유율
9.1조동 5,196억원(347 백만달러)	7,270억동 415억원 · 전년비 +593%	44.5% 베트남 1위(메리노 +첼라노)	74.9% 베트남 1위(뜨 영안)

① 0.3돈에서 베트남 1등까지 - 킨도의 탄생과 전성기

킨도 이야기는 화교 형제에서 시작된다. 쩐 김 탄(Trần Kim Thành) 형제가 1993년 호찌민시에 작은 과자 공장을 세웠다. 처음 만든 건 빵튀기 과자였다. 그런데 손이 빨랐다. 2003년 비스킷 시장에 뛰어들더니 "코지(Cosy)"와 "솔라이트(Solite)" 브랜드로 불과 7년 만에 베트남 비스킷 1위에 올랐다. 여기에 추석 월병(月餅) 시장에서도 킨도 브랜드는 해마다 300톤 이상을 팔아치우는 압도적 1위가 됐다.

전성기에 킨도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국민 과자 브랜드였다. 하노이·호찌민시 어디서든 슈퍼마켓에 가면 킨도, 코지, AFC 크래커가 선반을 채우고 있었다. 소비자 조사에서 베트남 식품 브랜드 인지도 1위를 놓치지 않았다.



② 3억7000만달러에 브랜드를 팔다 - 2015년의 결정

2014년 11월, 킨도 이사회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글로벌 식품 기업 모델레즈 인터내셔널(Mondelez International)에 제과 사업부 지분 80%를 3억 7000만달러(약 5,547억원)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킨도·코지·솔라이트·AFC 크래커 - 20여 년 쌓아온 제과 브랜드 전체가 미국 회사 손으로 넘어갔다. 킨도 법인은 회사 이름을 "키도(KIDO)"로 바꾸고 5년간 제과 시장에 재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왜 팔았을까. 이유는 현실적이었다. 오레오·리츠·캐드버리를 가진 모델레즈 같은 글로벌 공룡과 정면 경쟁하는 것보다, 경쟁이 덜한 식용유·아이스크림 시장에서 확실한 1위를 굳히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매각 대금으로 뜨영안(Tường An)·보까리맥스(Vocarimex) 등 식용유 회사들을 사들이며 마가린·쿠킹오일 시장 1위 자리를 탄탄히 했다. 아이스크림 "메리노(Merino)"와 "첼라노(Celano)"도 이 시기에 시장점유율 44.5%의 독보적 1위가 됐다.

지금 슈퍼마켓에서 킨도 월병과 코지 비스킷을 사면 그 돈은 시카고 본사가 있는 모델레즈 인터내셔널로 간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킨도를 여전히 베트남 브랜드로 알고 있지만, 법적 소유자는 미국 회사다.

▶ 킨도·키도 그룹 사업 변천사

시기	주요 사건	사업 중심	결과
1993~2002	과자 공장 창업 → 빵튀기·스낵 성장	빵튀기·스낵 제조	호찌민 지역 브랜드 구축
2003~2014	비스킷 진출·월병 1위·북부 킨도 합병	제과 전 카테고리 석권	베트남 제과 1위 등극
2015~2020	모델레즈에 제과 매각 (\$3.7억)·사명 KIDO로 변경	식용유·아이스크림	마가린 1위·아이스크림 1위
2021~2023	베이커리 재진입·추크추크·밀크티 체인·비베브 JV	베이커리+음료+식용유	재진입 부진·비베브 해산
2024~현재	구조조정·토파트(Tho Phat) 베이커리 인수·3대 전략	생필식품+베이커리+M&A	2025 세전이익 +593% 반등



③ 자기 브랜드와 경쟁하는 묘한 처지 - 베이커리 재진입

5년 약속이 끝난 2021년, 키도는 베이커리 시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다. 키도가 경쟁해야 할 1위 브랜드가 자신이 팔아버린 "킨도(Mondelez Kinh Do)"다. 20년간 직접 키운 브랜드와 이제 싸워야 한다. 키도는 "키도 베이커리(Kido's Bakery)" 브랜드로 빵·케이크·스낵 누들 등을 내놓았고, 2023년에는 베이커리 전문 기업 토파트(Tho Phat)의 지분 68%를 인수하며 생산 기반을 확충했다. 목표는 "베트남 베이커리 시장 2위"다.

결과는 아직 진행 중이다. 2024년 베이커리(토파트 포함) 매출은 1조3,880억동(약 793억원)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전체 수익성은 여전히 식용유 사업(매출 80% 이상)이 받쳐주고 있다. 2024년에는 영업 적자도 기록했다. 추크추크 밀크티 체인과 비베브 조인트벤처 등 잇단 신사업 실패가 회사에 부담을 줬다. 2025년 들어서야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전이익이 727십억동(약 415억원)으로 전년 대비 593% 급등했다.

2026년 주주총회에서 키도는 "생산·조인트벤처·M&A"를 3대 전략 축으로 선언했다. 식용유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면서, 베이커리는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려가겠다는 방향이다. 킨도에서 키도로, 다시 베이커리로 돌아온 이 기업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베트남 식품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 편집부 평가 - 킨도·키도, 한국 식품기업에게 주는 교훈

킨도·키도의 30년은 베트남 식품시장의 압축판이다. 이 기업이 걸어온 길에서 한국 기업들이 읽어야 할 교훈이 세 가지 있다.

첫째, 브랜드를 팔면 되찾기 어렵다. 킨도는 \$3.7억을 받았지만 지금 자기가 키운 브랜드와 싸우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에서 브랜드를 키울 때 장기 소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단기 매각 이익이 장기 브랜드 가치보다 클 수 없다.

둘째, 베트남 베이커리 시장은 아직 판이 열려 있다. 킨도(Mondelez)·키도·ABC 베이커리·비비카(Bibica)가 경쟁하지만, 한국식 건강 베이커리나 프리미엄 샌드위치 브랜드가 차지할 자리는 충분하다. 파riba게트가 VTI를 통해 현지화에 나선 것도 이 판단에 근거한다.

셋째, 키도의 M&A 전략은 한국 기업 파트너십 기회다. 키도는 조인트벤처와 M&A를 2026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유통망 3,570명 직원·전국 냉동 물류 인프라를 가진 키도와 한국 식품 기업이 손잡는다면, 한국 제품이 베트남 전역에 팔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출처: VIR(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The Investor·Vietstock·Vietnam News·Kirin Capital 분석보고서·Yahoo Finance KDC.VN·Mondelez International 공식 발표 (2014~2026)]

HWASEUNG Enterprise

화승엔터프라이즈

당신이 아는 화승 당신이 몰랐던 화승

하나를 하고도 열을 드러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열을 하고도 하나를 밝히기 어려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기술의 부족함을 연구하고
길을 닦기보다는 속과 뒤, 그리고 신뢰를 다져온 화승그룹

진심이 있는 기술은 깊이가 다릅니다
역사가 있는 혁신은 내일이 다릅니다

교민과 항상 함께하는 글로벌 스포츠 패션 기업

HWASEUNG
Enterprise

밤새워 응원하고, 새벽에 일하러 가는 나라

2026 FIFA 월드컵이 베트남 소비·문화에 미친 영향 분석

베트남은 한 번도 FIFA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나라만큼 월드컵을 열정적으로 즐기는 나라도 드물다. 2026년 6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열린 제23회 FIFA 월드컵 기간 동안, 베트남의 새벽 2시 카페는 낮보다 붐볐고, 맥주 공장은 증산에 나섰으며, 경찰은 도박 조식을 잡는 데 여념이 없었다.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소비 문화의 총체적 현상이 된 베트남의 한 달을 들여다본다.

대회 기간 (현지 시간)	참가국·방식	월드컵 첫 20일 불법도박 단속	최대 단일 도박망 적발액
2026.6.11~7.19 (39일간) 결승: 7월 20일 오전 2시 스페인 우승 (2번째) 패: 2010년 이어)	48개국 출전 역대 최대 규모 아시아 쿼터 8.5장 베트남 예선 탈락	73개 조직 해체 346명 체포 적발 금액 수천 억동 이상	\$1억3300만 (약 1,967억원) 호찌민시 경찰· 6월 말 급습 계좌 뿌리: 캄보디아

① 새벽 2시 카페가 만석 - 베트남 월드컵 관람 문화

베트남에서 월드컵을 보는 일은 집 안이 아니라 밖에서 일어난다. 2026년 대회가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열리면서 주요 경기 킥오프 시각이 베트남 기준 자정~새벽 4시에 집중됐다. 한국이라면 TV 앞에서 졸다 잠드는 시간대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이 시간대에 오히려 카페와 맥주집이 꽉 찼다.

하이랜즈커피는 하노이·호찌민시·다낭 일부 매장에서 결승전 당일 철야 영업을 공식 선언했다. 하노이 올드쿼터 항부옴 거리의 스포티보(Sportivo) 펍은 월드컵 기간 하루 1,000명 이상이 찾았다. 하노이 서호 카페들, 호찌민시 부이비엔 워킹스트리트, 타오디엔 루프탑 바까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자리 예약을 받는 것이 일상이 됐다. 현지 카페 주인 호영 씨는 "이번 월드컵을 위해 빔프로젝터 3대와 대형 TV 2대를 새로 샀다"고 말했다.

베트남 축구 팬들의 응원 문화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자국 팀이 없는데도 응원 열기가 뜨거운 이유는 "스타 중심 응원" 방식 때문이다. 현지 팬들은 호날두·메시 같은 특정 슈퍼스타를 좋아하고, 그 선수가 있는 팀을 응원한다. VnExpress가 취재한 외국인 거주자 윌 쿠라조는 "프랑스에서는 자국 팀이 준결승부터나 거리에 나오는데, 베트남에 와서는 모든 경기를 카페에서 응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적 효과도 즉각적이었다. 카페·식음료·맥주 판매가 일제히 증가했다. 사비나(Sabeco·사이공 맥주)와 하비다(Habeco·하노이 맥주)는 월드컵 기간 6~7월 출고량이 평월 대비 20~30% 늘었다고 업계에서 추정한다. 치킨·건어물·소시지·사탕수수주스 등 경기 관람용 간식 배달 수요도 급증했다. 그랩푸드는 심야 주문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② 축구 도박의 민낯 - 불법 베팅 1억 3,300만달러 네트워크 적발

베트남에서 축구 도박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법적으로 내국인의 스포츠 베팅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월드컵 시즌이 되면 음지의 도박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된다. 2026년 월드컵 기간, 베트남 치안 당국은 이를 정면 단속하기로 했다.

공안부는 월드컵 개막 후 첫 20일 동안에만 73개 불법 도박 조직을 해체하고 346명을 체포했다. 적발된 거래 규모는 수천억동에 달했다. 가장 큰 단일 사건은 호찌민시 경찰이 6월 말 급습한 도박 네트워크로, 거래 규모가 약 1억3,300만달러(약 3조4,900억동·약 1,967억원, 1달러=1,478.72원 기준)에 달했다. 85명이 구금됐으며 계좌 뿌리는 캄보디아까지 이어졌다. 7월 5일에는 남부 경찰이 또 다른 1조동(약 562억원) 규모 네트워크를 적발했다.

불법 도박이 번성하는 이유는 제도의 역설에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1일 국제 축구 베팅 한도는 고작 100만동(약 6만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VCCI)가 "이 한도로는 합법 베팅이 불법 플랫폼과 경쟁이 안 된다"며 1억동(약 563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 배경이다. 합법 채널을 너무 좁게 만들어두니 돈이 음지로 흘러가는 구조다.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문제도 도박과 얽혔다. VTV가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했지만, "쑤이락TV(XoilacTV)" 류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무단으로 경기를 중계하면서 동시에 불법 도박 사이트로 유도했다. 당국이 도메인을 차단하면 즉시 새 도메인으로 우회하는 고양이-쥐 게임이 반복됐다.

③ 축구가 만든 소비 지형 - 맥주·배달·여행·유니폼까지

월드컵은 베트남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비 촉진제다. 편의점 CU·GS25·원스탑 등은 월드컵 시즌 맥주·음료·안주류 판매가 평월 대비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치킨 브랜드 졸리바·KFC·롯데리아·포체(Pho24)는 심야 배달 주문이 급증했다. 베트남판 "치맥 문화"가 월드컵 기간 절정에 달한다.



여행 산업도 수혜를 봤다. 비엠티라벨·호안미여행·닷비엠티어는 현지 관람 패키지(북미 5~6일 5성급, 킥오프 직관 포함)를 수천달러에 판매했다. 이렇게 비싼 패키지를 구매하는 층은 상위 중산층 이상이지만, 그 존재 자체가 베트남 소비 파워가 커졌다는 신호다. 하노이·호찌민시 출발 북미 직항 항공편 수요도 잠시 반짝 상승했다.

유니폼·굿즈 시장도 활성화됐다. 각 팀 공식 유니폼이 10만~80만동(약 4,500원~4만5,000원) 사이에 시장과 온라인에서 대거 유통됐다. 대부분 진품이 아닌 복제품이었지만 수요는 폭발적이었다. 아르헨티나·브라질·스페인·프랑스 유니폼이 가장 많이 팔렸으며 스페인이 결승에 올라 우승하면서 스페인 유니폼 수요가 후반부에 급증했다.

직장 생산성 문제도 빠질 수 없다. 경기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전날 밤 새워 응원한 직원들로 가득 찼다. 하노이 IT 기업 직원 남이(26세)는 "경기가 있는 날 다음 날 점심 전에는 업무 효율이 절반도 안 된다"고 했다. 일부 기업은 아예 다음 날 재택근무를 허용하거나 오전 출근 시간을 늦췄다.

★ 편집부 평가 - 베트남의 축구열,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다

베트남에서 월드컵 시즌은 축구가 아니라 생활방식의 총체다. 새벽 카페, 심야 배달, 맥주 소비, 친구들과의 내기, 유니폼 쇼핑이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 이 열기는 4년마다 오지만 베트남 중산층의 소비력이 커질수록 그 경제적 파장도 커진다.

한국 기업들에게 시사점이 있다. 첫째, 심야 소비 시장이다. 편의점은 이미 베트남 야간 소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치킨·배달 플랫폼·간편식 기업들에게 스포츠 이벤트 연계 마케팅은 가장 효율적인 베트남 공략법이다. 둘째, 스포츠 베팅 합법화 흐름이다. 베트남이 일 베팅 한도를 1억동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합법 스포츠 베팅 시장이 열린다. 한국의 스포츠토토 운영 경험과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참고할 대목이다. 셋째, 2030·2034 월드컵을 향한 베트남의 본선 진출 꿈이 커지고 있다. 베트남 대표팀 후원, 스포츠 인프라 투자,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사업 진출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출처: VnExpress International (2026.07.05) · Vietnam.vn 월드컵 관람 문화 (2026.07.19) · VOV5 FIFA World Cup Fever (2026.06.12) · JournalArta Global 하노이 카페 현장 (2026.07.07) · TNK Travel 베트남 월드컵 시즌 분석 · AlienWP \$133M 도박망 적발 (2026.06 말) · Mundo Video Entertainment 단속 강화 (2026.06) · VCCI 베팅 한도 상향 제안 · iGamingToday 베트남 도박 규제 (2026.04) · D8A Spring 아시아 소비 행동 분석]

껀터(Cần Thơ) 수상시장 물 위에서 시작되는 하루 메콩 델타의 심장

새벽 다섯 시, 안개가 낮게 깔린 강 위에 수백 척의 배가 모여든다. 대나무 장대 끝에 수박이 매달려 있으면 그 배는 수박 장수다. 파인애플이면 파인애플, 바나나면 바나나. 고함 없이도 통하는 이 오래된 언어가 껀터(Cần Thơ) 까이랑(Cái Răng) 수상시장의 문법이다.



호찌민→껀터 (소요시간·비용)	까이랑 수상시장 (운영시간)	닌끼에우 선착장 (샘판 렌탈)
버스 3시간30분 8만 ~12만동(5천원~7천원)	새벽 4시30분~오전 9시 절정: 5시~7시30분	개인 샘판 25만~40만 동 (1만4천원~2만3천 원)/2~3시간

① 까이랑 수상시장(Chợ Nổi Cái Răng) 100년의 물 위 장터 - 새벽 5시에만 볼 수 있는 풍경



까이랑 수상시장은 껀터강(Sông Cần Thơ)에서 100년 가까이 이어진 메콩 델타 최대 수상 도매시장이다. 새벽 4시30분이 되면 수박·파인애플·망고·연근을 가득 실은 나무배들이 강으로 나온다. 오전 7시30분이 절정, 9시가 되면 배들이 흩어진다.

▶ 장대 광고 시스템 (Bèo)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다. 각 배의 뱃머리에는 긴 대나무 장대(Beo)가 세워져 있고 장대 끝에 팔 물건 샘플이 매달려 있다. 수박이면 수박, 파인애플이면 파인애플. 소리 없이도 강 위 수백 미터 거리에서 뭘 파는지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수백 년 강 위 무역의 효율성을 지탱했다.

▶ 관광화의 현실

10년 전보다 배 수가 줄었다. 도로와 트럭이 물류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벽 5시~7시의 까이랑은 여전히 진짜 도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시장이다. 오전 9시 이후에 방문하면 관광용 커피보트만 남는다. 타이밍이 전부다.

▶ 가장 좋은 방법

닌끼에우 선착장(Bến Ninh Kiều)에서 개인 샘판(Sampan)을 빌린다. 4~6인 소형 목선으로 2~3시간 코스. 뱃사공 할머니와 함께 새벽 안개 속 시장을 천천히 돌면서 배 위에서 후 티에우(Hủ Tiếu, 쌀국수)와 베트남 커피로 아침을 먹는 것이 껀터 최고의 경험이다. 가이드를 구하면 역사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이해가 깊어진다.

개인 샘판 렌탈(2~3시간·4~6인)	25만~40만동 (1만4천원~2만3천원)
공용 보트 1인 요금	5만~10만동 (2,834원~5,667원)
선상 아침식사(후 티에우+커피)	5만~8만동 (2,834원~4,534원)
반나절 가이드 투어(1인)	30달러~50달러 (4만5천원~7만4천원)

② 닌끼에우(Ninh Kiều) 선착장과 야시장 수상시장 다음 날 저녁 - 강변 노을과 선상 저녁





까이랑 수상시장이 건너의 새벽이라면 닝끼에우 선착장(Bến Ninh Kiều)은 건너의 저녁이다. 허우강(Sông Hậu)을 마주한 이 선착장에는 저녁이 되면 노점이 늘어 서고 조명이 켜진 유람선이 드나든다. 연꽃 모양 보행자 다리(Cầu Đi Bộ)가 야경의 명소다.

▶ 선상 저녁식사 크루즈

닝끼에우 선착장에 대형 식당선들이 정박해 있다. "두 투옌 건너(Du Thuyền Cần Thơ)" 같은 레스토랑 보트에서 강 위를 천천히 오가며 메콩 델타 요리를 먹는다. 라우 맘(Lẩu Mắm, 발효 생선 젓갈 전골)•바인 켄(Bánh Căn, 미니 팬케이크)•까 로크 누엥(Cá Lóc Nướng, 가물치구이)이 대표 메뉴다.

▶ 닝끼에우 야시장

선착장 인근 야시장은 건너 현지 간식의 총집합이다. 바인 켄(Bánh Căn, 새우 머핀), 바인 떠 로아(Bánh Tét Lá Cẩm, 자색 찹쌀 떡), 체 바 마우(Chè Ba Màu, 삼색 빙수)를 한곳에서 맛볼 수 있다.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 힐링 포인트

수상시장의 소란함과 달리 닝끼에우 선착장의 저녁은 조용하고 느리다. 허우강 건너편 불빛이 반짝이는 물 위에 앉아 맥주 한 캔과 함께 오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건너의 진짜 힐링이다.

선상 크루즈 저녁식사(1인)	30만~50만동 (1만7천원~2만8천원)
야시장 간식 1인분	1만5천~3만동 (850원~1,700원)
허우강 뷰 카페 음료	3만~5만동 (1,700원~2,834원)
닝끼에우 강변 호텔 1박	40만~80만동 (2만3천원~4만5천원)

③ 핑 딩 고택 & 메콩 과수원 투어 100년 된 집과 열대과일의 섬나라



수상시장과 야시장만이 건너가 아니다. 도심에서 그랩 오토바이로 15분이면 열대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수상 과수원과 운하가 기다린다. 핑 딩 고택(Nhà Cổ Bình Thủy)은 1870년에 지어진 프랑스-베트남 혼합 건축 고택으로 드라마 "인도차이나"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 핑 투이 고택(Bình Thủy Ancient House)

150년 전 프랑스 식민지 시대 부유층의 생활상을 그대로 간직한 고택이다. 대칭 정원, 유럽풍 기둥, 베트남 목조 가구가 한 공간에 있다. 입장료는 무료로 가깝고 현지 자원봉사 해설사가 영어로 설명해 준다.

▶ 메콩 과수원 섬 투어

닝끼에우에서 작은 배를 타고 운하로 들어가면 잭프루트•두리안•망고•코코넛이 가득한 과수원 섬들이 나온다. 농가에서 직접 딴 열대과일을 맛보고 코코넛 캔디 만들기 체험한다. 한국 여행자들에게 "베트남 과일이 이렇게 맛있었다" 깨닫는 순간으로 알려져 있다.

▶ 꽃 당(Phong Điền) 수상시장

까이랑보다 소박하고 관광화가 덜한 꽃 당 수상시장도 병행 방문을 추천한다. 새벽 6시~9시, 현지 주민들의 일상 거래가 여전히 살아있다. 소규모라 더 친밀하다.



핑 투이 고택 입장료	무료~2만동 (0원~1,134원)
과수원 섬 보트+열대과일 체험(1인)	15만~25만동 (8,500원~1만4천원)
꽃 당 수상시장 공용 보트(1인)	5만~7만동 (2,834원~3,967원)
과수원 직판 열대과일(1kg)	2만~5만동 (1,134원~2,834원)

④ 건너 실전 가이드 언제 • 어떻게 • 어디서 자고 • 무엇을 먹을까

건너는 호찌민에서 버스로 3시간30분(8만~12만동, 4,534원~6,801원), 편안 버스 터미널 또는 미옌띠이 터미널에서 출발한다. 당일 치기도 가능하지만 수상시장은 새벽 5시가 절정이므로 1박이 훨씬 낫다.

▶ 최적 방문 시기

11월~4월 건기가 가장 좋다. 7~10월 우기는 홍수기로 일부 운하가 범람하지만 역설적으로 수상시장이 더 활기차다. 현재(7월)는 우기 초입으로 빗속 수상시장이라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숙박 추천

닝끼에우 선착장 도보권 숙소가 최선이다. 게스트하우스 20만~40만동(1만1천원~2만3천원), 빈켄 광장 인근 중급 호텔 40만~80만동(2만3천원~4만5천원). 허우강 뷰 룸을 요청하면 새벽 수상시장 출발이 더 편하다.

▶ 먹어야 할 것

후 티에우 남방(Hủ Tiếu Nam Vang, 프놈펜식 쌀국수) • 라우 맘(Lẩu Mắm, 메콩 발효 전골) • 바인 켄(Bánh Căn, 새우 머핀) • 두리안 아이스크림 • 코코넛 사탕. 한 그릇 3만~5만동(1,700원~2,834원).

[출처: Mekong Delta Travel Guide 2026•Grooviet Can Tho Top 10•Revitrip Cai Rang 가이드•Viator•VietGo 건너 가이드 (2026.07.19) 환율: 1달러=1487.93원 / 1달러=26,255동 (2026.07.19 실시간)]

까 링(Cá Linh)

홍수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내려오는 메콩의 계절 생선

7월 말, 캄보디아 상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메콩강 수위가 오른다. 안장성(An Giang) 안푸(An Phú) 군의 어민들은 그 징조를 제일 먼저 알아챈다. 강이 불어나면 작은 은빛 물고기 떼가 떼를 이뤄 내려온다. 까 링(Cá Linh)이다. 이 물고기는 오직 홍수기(8월~11월)에만, 오직 메콩 상류에서만 내려오는 계절의 선물이다. 캄보디아 국경을 맞댄 안장성과 동탑성(Đồng Tháp)이 처음 받는 이 생선은 강물이 빠지기 전에 잡아야 한다. 해마다 짧지만 풍성하다.

① 까 링(Cá Linh)이란 어떤 생선인가



까 링의 학명은 *Cirrhinus jullieni*다. 메콩강 수계에 사는 잉어과 담수어로, 성체는 보통 15~25cm, 최대 40cm까지 자란다. 그런데 맛이 가장 좋은 것은 홍수 초입인 7월 말~8월 초에 내려오는 어린 까 링, 즉 "까 링 논(Cá Linh Non)"이다. 손가락만 한 크기에 살이 희고 부드럽고 달다. 이때 잡은 까 링은 가시도 연해서 통째로 먹을 수 있다.

까 링은 오직 자연산만 있다. 양식이 불가능하다. 캄보디아 톤레삽(Tonle Sap) 호수와 상류 메콩강에서 산란하고 자란 어린 물고기들이 우기에 강수량이 늘면 하루로 떠내려온다. 이 긴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가 베트남 안장성의 안푸·짜우독(Châu Đốc) 일대다. 그래서 안푸 군의 빈호이동(Vinh Hội Đông) 같은 국경 마을에서 까 링이 가장 먼저 잡힌다.

2026년 홍수 예보에 따르면, 안장성 편짜우(Tân Châu) 기준 최고 수위는 3.8m로 예상된다. 평균보다 0.06m 낮지만 홍수 경보 1단계(3.5m)보다 0.30m 높다. 즉 홍수는 오지만 예년보다 약한 편이다. 홍수가 약하면 까 링 어획량도 줄어든다. 어민들이 "홍수가 와야 풍년"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최근 몇 년간 중국·라오스·캄보디아 상류 수력발전 댐 건설로 홍수 규모가 줄면서 까 링 어획량도 감소 추세다.

② 까 링을 어떻게 먹나 - 세 가지 대표 조리법

【라우 까 링 봉 디엔 디엔 (Lẩu Cá Linh Bông Diên Diên)】

까 링 전골이다. 메콩 홍수기의 상징적 음식으로 동탑성과 안장성 식당 메뉴 앞줄을 차지한다. 국물은 타마린드(Me Chua)로 새콤하게 베이스를 잡고 코코넛 워터를 넣어 단맛을 더한다. 여기에 봉 디엔 디엔(Bông Diên Diên·황금 세스바니아 꽃), 봉송(Bông Súng·야생 수련), 자우 므엉(Rau Muống·공심채)을 넣는다. 까 링은 마지막에 산 채로 넣어 익힌다. 타마린드의 신맛이 생선 비린내를 잡아주는 구조다. 동탑성 안장성에서 7월 말~11월에만 먹을 수 있는 계절 한정 음식이다.

【까 링 코 자 (Cá Linh Kho Rau Răm)】

까 링 조림이다. 밥도둑이라 불린다. 간장·설탕·코코넛 워터에 자우 램(Rau Răm·베트남 고수)을 넣고 푹배기에 졸인다. 까 링의 부드러운 살과 연한 가시가 조림 국물에 푹 배어든다. 이렇게 만든 까 링 코는 흰 쌀밥 한 공기를 푹딱 비우게 만드는 메콩 델타의 가정 밥상 음식이다.

【맘 까 링 (Mắm Cá Linh)】

까 링 젓갈이다. 까 링을 소금에 절여 수개월 발효시킨다. 완성된 맘 까 링은 강렬한 감칠맛을 내며 메콩 델타 요리의 소스·찌개 베이스로 쓰인다. 까 링이 가장 많이 잡히는 8~9월에 담가두면 연말까지 먹을 수 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 어민들의 전통 저장 방식이다.

▶ 2026년 7~8월 안장·동탑성 기준 현장 가격 (출처: SGGP · Vietnam News)

까 링 논(어린 것) 1kg (시장 기본가)	4만~8만동 (2,253원~4,506원)/kg
까 링 논 1kg (어획 적을 때 · 희귀 시즌)	10만~30만동 (5,632원~16,896원)/kg
라우까링봉디엔디엔전골(로컬 식당 2인)	8만~12만동 (4,506원~6,759원)
맘 까 링(젓갈) 1병 (300g)	5만~10만동 (2,816원~5,632원)
까 링 코 자우 램 조림 1인분	3만~6만동 (1,690원~3,379원)
호찌민시 식당 라우 까 링 (출하 후)	15만~25만동 (8,453원~14,089원)



③ 국경 마을 어민들의 이야기 - 홍수가 와야 먹고산다

안장성 안푸 군 빈호이동(Vinh Hội Đông) 마을은 캄보디아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국경 마을이다. 이 마을 어민들에게 홍수기는 일 년 중 가장 바쁜 계절이자 가장 중요한 수입 시기다. Vietnam News가 취재한 어민 응우옌 반 히엔(Nguyễn Văn Hiên)은 "강이 빠르게 불어나는 요즘 하루 5~7kg 생선을 잡아 시장에 팔면 20만동(약 11,277원) 정도 번다.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어민들의 목소리는 어둡다. 메콩 상류의 수력발전 댐들이 늘면서 홍수 규모가 작아지고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홍수가 약하면 까 링 떼도 적게 내려온다. SGGP(사이공 해방신문)이 안푸 군 투록상(Thượng Lạc) 일대를 취재한 2025년 기사에 따르면, "올해는 생선이 적지만 가격이 높아 1kg당 최대 30만동에 팔린다"는 어민 증언이 나왔다. 공급이 줄자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다.

까 링이 내려오는 국경 수로는 소 투옹(Sở Thượng) 강이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공유하는 이 국경 수로에서 어민들은 그물을 치고 통발을 놓는다. 황금 석양 아래 보트가 줄지어 떠 있고 그물 던지는 소리, 노 젓는 소리가 섞인 풍경이 안장성 홍수기의 상징적 장면이다. 동탑·안장·파이닝(Tây Ninh)성 국경 지역도 마찬가지다. 물이 빠질 때 어민들은 물고기를 따라 이동하며 생계를 잇는다.

④ 이 계절 이 생선을 먹으러 가려면 - 실전 가이드

까 링 논을 가장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은 안장성 짜우독(Châu Đốc)이다. 호찌민시에서 버스로 약 5시간(10만~15만동, 5,632원~8,453원). 짜우독 재래시장(Chợ Châu Đốc)에서 아침 일찍 현지 어민들이 직접 가져온 까 링 논을 살 수 있다. 7월 말~9월이 최성기다.

동탑성 까오라인(Cao Lãnh)과 홍흥(Hồng Ngự) 읍도 추천 목적지다. 홍수기 논밭이 물에 잠기는 장관과 함께 라우 까 링 전골을 맛볼 수 있다. 홍흥은 캄보디아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베트남 소읍 중 하나로, 국경 어민들의 까 링 직판 시장이 선다.

호찌민시에서도 맛볼 수 있다. 5군·7군의 메콩 델타 식전문 식당에서 라우 까 링을 메뉴에 올린다. 다만 가격은 현지(8만~12만동)보다 훨씬 비싸다(15만~25만동). 신선도도 현지에서 먹는 것과 차이가 있다. 원본은 역시 안장·동탑 현지다.

주의 사항: 까 링은 7월 말~11월만 나오는 계절 생선이다. 이 시기를 벗어나면 구하기 어렵거나 냉동·통조림 형태만 있다. 홍수기에 안장·동탑을 방문한다면 우비와 방수 신발은 필수다. 현지 국도 일부가 침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출발 전 기상청(nchmf.gov.vn) 수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안장성 포털(angiang.gov.vn) · Vietnam News "Mekong Delta expects higher floods" (2024.08.26) · SGGP English Edition "Golden harvest of flood season" (2025.08.17) · Vietnam.vn "Fish migration season" (2025.12) · TasteAtlas "Top 3 Mekong Fish Dishes" · Vietnam.vn 2026 홍수 예보 (2026.06.15) · IziTour "An Giang Floating Season" · IZITOUR 안장성 홍수기 사진 보고서】



ONE SERVICE

베트남 진출, 원스톱 솔루션 원서비스로 빠르고 안전하게!

법인 설립부터 HR, 세무·회계까지 한 번에 해결 !

- ✓ 법인 설립 & 비즈니스 컨설팅
 - 외투법인, 현지법인, 외투전환 설립
 - 사업자 등록, 법인 도장, 초기 세금 신고
- ✓ 세무·회계 관리
 - 월별 세금 신고 & 기장 대행
 - 연말 정산, 재무 보고서, 전자 세금계산서
- ✓ HR & 직원 관리 서비스
 - 직원 채용 & 급여 관리 (현지 & 한국어 가능 인력)
 - 노동허가서 & 사회보험, 아웃소싱 지원
- ✓ 비즈니스 컨설팅 & 행정 업무 대행
 - 공증, 번역 서비스 & 법률 준수 컨설팅
 - 공항 VIP 패스트트랙 (입국 \$18 / 출국 \$25)



원서비스는 다릅니다!

- ✓ 10년 이상의 베트남 법률·세무·HR 경험
- ✓ 한국 기업 맞춤형 컨설팅 & 신속한 대응
- ✓ 투명한 비용, 믿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상담 및 문의

전 화: 08-3333-1004

이메일: simon@oneservice.group

주 소: 65 Dang Nhu Mai, Phuong Thanh
My Loi, Thanh pho Thu Duc, HCMC

카카오: ONESERVICE1